

T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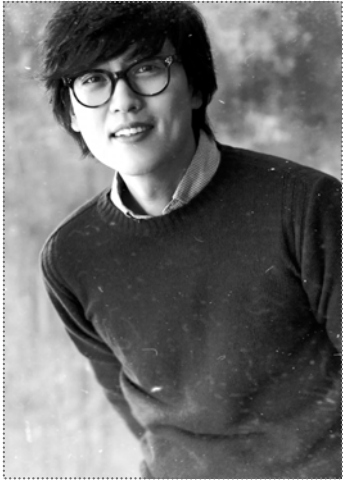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9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50 지구촌 뉴스	10	30 SBS 뉴스
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35 아름다운 사람들 스페셜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	11 00 문화이색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00 스타 인생극장(재)	12 00 MBC 뉴스 15 늘 푸른 인생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재)		1 05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	30 도전! 슈퍼대(재)
00 KBS 뉴스 10 우수고교초청 KBS배 불리대회	10 의뢰인 K	2 00 찾아라 맛있는TV 스페셜	00 SBS뉴스 10 건강클리닉(재)
	00 KBS 뉴스타임 05 주류명 동물탐정(첫회) 35 출발! 모닝와이드 3부 미출품	3 0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50 MBC 뉴스	10 특집다큐 자유로운 설원 일레스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을 읽는 5대(張)쟁이>	00 TV 유치원 30 오우의 초록기방	4 00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재) 30 보글보글 록?	00 스킨2고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사랑의 가족	5 00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애정만년세>(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6 00 6시 뉴스메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45 스타 인생극장 <김태원>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다리의 역습>	10 시사타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사이>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0 호루라기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수목드라마 <영광의 재인>	9 55 수목미니시리즈 <나도, 꽃>	55 SBS 대기획 <부리검은 나무>
00 역사스페셜 <노비 정초부 시인이 되다>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라인 40 현장프로 동행	05 해피투게더	11 05 커버댄스 페스티벌 K-POP로드쇼(최종결선)	15 스타부부쇼 자기야
25 KBS 뉴스 콘서트 필 2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남독의 발견	12 20 MBC 뉴스 24 300 MBC 100분 토론	25 나이트라인 45 한국의 숲(재)

“10년 숙성... 빛나도록 아껴둔 곡 모았어요”

김동률 3년10개월만에 겨울 콘셉트 정규앨범 발표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이 겨울을 콘셉트로 한 새 음반 '김동률(kimdongryou)'을 15일 발표했다. 정규 음반은 3년 10개월 만이다. 김동률은 “과거 쓴 곡 중 다른 음반에 수록되는 것보다 빛나도록 아껴 둔 곡을 모아 겨울에 내고 싶었다”며 “또 머릿속 구상을 당시 역참으로 풀어내기 불가능해 잠시 미뤄둔 곡도 있다. 사람들이 ‘예전의 나 같은 곡’들이어서 반갑다더라”고 소개했다. 음반에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영어의 옛 고어인 ‘올(YOUL)’을 대문자로 강조하고, 트랙 도입부에 ‘프레이어(Prayer)’,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등 멜로디 자체에 겨울의 당위성을 띄는 곡을 배치했지만 크리스마스용 음반을 내기로 마음 먹고 쓴

곡들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수록곡들은 1998년부터 2000년대 초반 써둔 미발표 곡들이 주를 이뤄 10년의 숙성 기간을 거친 셈이다. “제겐 그 때까지가 어른이 되기 직전 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란 울타리에 있으며 제 인생을 확 뒤집을 수 있는 나이었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지 막연하게 길에 정해졌지만 그때는 제 인생에서 뭔가 고민하며 혼란스러운, 가장 행복했고 치열했던 시기죠.” 이때의 감성이 담긴 곡들 중엔 오랜만에 절규하는 찬방, 드러마틱한 멜로디에 감출하는 찬방, 드러마틱한 멜로디에 감출하는 찬방 때문”이라며 “또 대학 시절부터 활동해 나를 권태기도 앓았다”고 설명했다. 공연 무대만 고려할 뿐, 음악 프로그램 MC인 유희열과 예능 프로그램

많은 음악 동료들이 있다. 1998년 작곡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선 유희열, 이상선, 윤상, 정재운, 이적, 박정현 등 18명의 선배배들이 함께 노래했다. 1990년대 스타일로 편곡하고 당시 유행하던 건반인 SY99를 구해 연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국 한곡을 꼼꼼하게 설명한 그는 스스로도 ‘범생이’ 기질이 있다고 했다. 유학을 택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대학 교육 4년 후 사회생활 전 지적인 투자를 하는데 평생 음악학 사립이 교수로만 음악하는 건 스스로에게 소홀한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또 대학 시절부터 활동해 나를 권태기도 앓았다”고 설명했다. 공연 무대만 고려할 뿐, 음악 프로그램 MC인 유희열과 예능 프로그램

에서 활약 중인 정재형 등 동료들처럼 방송 출연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세가지죠. ‘일단 잘됐다, 부럽지 않다, 외롭다’예요.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건 보기 좋아요. 하지만 전 ‘까’가 없어 그럴 생각이 없기에 부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런 음악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닌데 제가 고집 피우며 못 따라간다는 시선을 받을 때는 외롭죠.” /연합뉴스

제20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비독대회

‘이쉬움이 남는 패배’
4회전 1국 총보(1~216)

白 정창호 5단 (포스코) 黑 조영배 5단 (주력관리사회)

단체전의 최종국인 이 판은 이제까지의 어떤 대국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판의 승패는 팀의 우승이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 4강에 진출하는 시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사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승부였다. 결과는 앞치마 뒤치마하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후반에 관공의 마무리를 보여준 정창호 5단의 불계승으로 끝났는데 이 판의 승리로 포스코는 우승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정 5단은 개인전 4강 진출이 확정되어 겹겹사를 맞게 되었다. 반면 조영배 5단은 몇 번이나 역전시킬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도 번번이 기회를 날려보내며 오래도록 후회를 남길 한 판이 되고 말았다. 초반은 좌상 쪽의 전투에서 흑이 사는데 급급한 나머지 세력을 뺏겨 백이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후 좌변의 점전에서 흑 79까지 흑이 너무 쉽게 안정하게 돼서는 오히려 흑이 재미있게 되었다. 그런데 후반의 승부처에서 잡을 수 있었던 백 대마를 백이 만들어준 것이 결국 패인이 되어 승리를 헌납하고 말았다. 백 216수 끝. 백 불계승.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음 10월 22일 丙子)

36년생 작은 이기심으로 인해 상도에 어긋남이 없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48년생 큰 고생은 없다. 60년생 미움을 느끼는 상대에게 오히려 감정을 찾아 청산해주자. 72년생 망각하면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 84년생 집착을 찾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 행운의 숫자: 59, 67

37년생 하늘 한번 우리러 보라. 49년생 원은 위대한 속에 있지 않지만, 위대한은 신 가운데에 있어라. 61년생 변덕은 스케줄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73년생 행복한 가정은 가족 모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85년생 길의 끝도 연분이 있어야 차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20, 17

38년생 대고는 없지만 득도 없다. 50년생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못 지않게 과오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 62년생 돈과 보증을 문제로 헤어졌다. 74년생 배우자의 오해가 생기기 않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28, 80

39년생 길사자 계속 될 것이나 수하인의 고생을 감안하라. 51년생 장본인은 따로 있으니 짐작으로 생각할 것 없다. 63년생 배우자의 집안에 안부를 살펴보자. 75년생 단독으로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52, 07

40년생 돈 욕망을 잘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52년생 과잉 친절함 사람의 내심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부부간에 화해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76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라. 행운의 숫자: 84, 37

41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자. 53년생 보여도 못 본 채고 들러도 못 들은 채 해야 하나니라. 65년생 수하인의 현신적 노력으로 문제가 처리된다. 77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을 바에야 강하게 부딪치자. 행운의 숫자: 12, 11

42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54년생 차분하게 돌아보고 모든 것을 살피 위주로 정리해야 한다. 66년생 작은 것 알고 큰 것 잃는다. 78년생 아침의 상황이 저녁에 급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33, 71

43년생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 55년생 참회해 열심히 사는 것이 훗날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니라. 67년생 곤경에 처해 있는 배우자를 간파하라. 79년생 겸손과 정화함이 사생활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23, 15

44년생 원행할 때는 일기 예보를 참고해야겠다. 56년생 수하인에게 내 것을 내주면 복 받으리라. 68년생 서로 결정을 응사해야 무에할 수 있다. 80년생 이성을 만나기 전에 꼭 기운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58, 57

45년생 건강검진을 해보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된다. 57년생 상사로운 기운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으니라. 69년생 새로운 일을 발의 하지 말라. 81년생 아주 쉬운 일이니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88, 24

46년생 헛 문서 잡고 논물놀이 두렵다. 58년생 부모를 보살피고 효도를 다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70년생 정직하고 투명하다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82년생 안개 속이 꽃구경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44, 89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59년생 실패는 전 지극히 위한 훈련이다. 71년생 계획되었던 일들이 될 듯 말 듯하더니 계속 미루어지겠다. 83년생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 이니라. 행운의 숫자: 64, 16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EBS

06:00 극한직업	10:0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방귀대장 뽀뽀(재)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6:30 미래직업, 뜨는직업	10:30 60분 부모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9:10 제로노미의 모험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1:30 아빠 놀이취미	17:15 한글전주 아라리(재)	19:35 스포츠
07:10 제로노미의 모험	12:00 EBS 정오뉴스	17:30 키득키득 실험실	20:00 키득키득 놀이취미
07:35 꼬마버스 타요와 친구들	12:10 2011 글로벌 인제트림 1부	17:35 피플리프	20:30 EBS 뉴스
07:45 뽀뽀뽀 뽀로로	13:00 세계대사(재)	17:45 부릉! 부릉! 부릉! 부릉!	20:45 지식채널e
08:00 뽀뽀뽀 뽀로로	아프리카 배낭 4부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재)	20:50 세계대사(재)
08:20 꼬마버스 타요	13:40 미래직업, 뜨는직업(재)	18:10 부두와 친구들	21:30 세계기행 곤산 4부
08:35 한국전주 아라리	14:10 미래직업, 뜨는직업(재)	18:15 생방송 특!특! 보너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깨피	15:00 스킨 한국어	18:20 친의가 반짝!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09:00 방귀대장 뽀뽀	15:30 미스 스페이더와 개구쟁이들	18:30 생방송 특!특! 보너스(재)	22:40 극한직업
09:10 부릉! 부릉! 부릉! 부릉!	15:55 뽀뽀뽀 뽀로로(재)	18:35 울리비아	23:20 디류 10+
09:25 똑똑똑 밥이저씨	16:15 깨피(재)	18:40 생방송 특!특! 보너스(재)	00:00 지식채널e
09:40 변신로봇 5	16:30 뽀뽀뽀 뽀로로(재)	18:50 와글와글 친구들	00:05 독립다큐관 <쿠비의 연인>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비문학>	13:00 <이재형의 미적분과 통계 기본>
05:00 EBS 기본과 특별한 <과정을 수확해>	14:00 EBS탐스런(재) <최경석의 한국 근현대사>
05:50 <영문법 출제특기>	15:00 <송원희의 지구과학 I>
06:40 EBS 포스 <현대문학>	16:00 <최선목의 지구과학 II>
07:30 EBS 탐스런 <최경석의 한국근현대사>	17:00 기본과 특별한(재) <과정을 수확해>
08:20 <함보연의 사회·문화>	18:00 <영문법 출제특기>
09:10 <한보라의 윤리>	19:00 EBS탐스런(재) <함보연의 사회·문화>
10:00 공부의 왕도(재)	20:00 <한보라의 윤리>
10:30 EBS 다큐프라임 <엄마가 달라졌어요>	21:00 EBS 포스 <현대문학>
11:20 EBS 내신 6급 <정승제의 수확해>	22:00 <고전문학>
12:10 EBS 포스(재) <고전문학>	23:00 EBS 내신 6급

EBS플러스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5:20 초등학업 성취도 평가 대비 강좌 <과학 3-2>
08:30 독학사 교육 강좌 <과학 3-2>	15:50 <과학 4-2>
09:00 EBS TV 중3 <영어>	16:20 <과학 5-2>
09:40 <국사>	16:50 <과학 6-2>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과학>	17:20 EBS 초등 내공 낚남 우리나라의 역사 6-1
11: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2	17:50 EBS TV 중1 <수학 1-2>
11:50 EBS TV 중2 <비문학 2>	18:30 <과학>
12:30 <과학>	19: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수학 2-2>
13:10 EBS TV 중3 <한문>	19:50 EBS TV 중2 <비문학 2>(재)
13:50 중학영어특강 Level 3	20:30 <도덕>(재)
14:30 초등 6학년 영어 Ready Set Go	21:10 EBS TV 중3 <영어>(재)
14:50 EBS 클럽뱅크	21:50 <국사>(재)
15:10 친의가 반짝!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워	오하오우 니혼고
<p>지새다/지새우다</p> <p>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p> <p>‘지새다’는 어둠이 사라지고 날이 밝아 온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날이 ‘지새다’는 일부터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날이 밝아 온다는 뜻인데 비해 ‘지새우다’는 잠을 자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넘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말에서 ‘지새우다’는 맞는 표현입니다.</p> <p>‘지새우다’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지새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밤을 지새다’는 쓸 수 없습니다.</p> <p>‘오늘 밤 지새고 내일 집에 갈 수 있다.’ ‘걱정이 되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시험 공부하느라 이틀 밤을 꼬박 지새웠다.’</p>	<p>What's she like? 그는 어떤 사람인데요?</p> <p>A : Hi, Nully! Would you like to meet my roommate? B : Sure. What's she like? A : She's just like your type, a bookworm. B : What do you mean?</p> <p>A : 이봐요, 넬리씨. 내 룸메이트를 만나서 인사하시겠어요? B : 좋아요. 그는 어떤 사람인데요? A : 그 분은 정말 자네 타입이야. 책벌레지. B : 무슨 말이요?</p> <p>* Would you like to~? = ~ 하시겠습니까? * 저하고 춤추러 가시겠습니까? = Would you like to go dancing with me?</p>	<p>搞破鞋 gǎo pòxié 문란한 여성은 신발이 떨어진다?</p> <p>중국어를 하다 보면 이 ‘搞’라는 글자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관문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진(破) 신발(鞋)’을 붙여 관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의미가 ‘풍기문란한 여성이 서방질 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p> <p>일설엔 대도시 기생들이 나이가 들어 몸값을 할 수 없을 때 도시를 빠져나와 손님을 찾으려고 광산이나 바닷가, 숲속까지 찾아 걸어 들어가며 먼 길 걷는 그녀들의 떨어진 신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p> <p>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p>	<p>その説明書の通りに組み立ててください。 그 설명서대로 조립해 주세요</p> <p>A : このロボットどう組み立てたら、いいですか。 B : 箱の中に説明書がありますよ。その説明の通りに組み立ててください。 A : はい、分かりました。これでいいですか。 B : ちょっと間違っていますね。もう一度やってみてください。</p> <p>A : 이 로봇 어떻게 조립하면 됩니까? B : 상자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 조립해 주세요. A :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됐습니까? B : 조금 틀렸군요. 한 번 더 해주세요.</p> <p>[문법정리] ◎ 명사 + の とおりに (~대로) ▶ この説明書のとおり、ここに絵を書いてください。 = 이 그림대로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 この説明書のとおり、切ってください。 = 이 선대로 잘라 주세요</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